

朝鮮時代 詩經學 속의 朱熹 詩經學

— 수용과 재해석 양상을 중심으로 —*

김 수 경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조선시대 시경학에서의 주희 |
| II. 기존 연구 성과 검토 | 시경학 수용과 재해석 양상 |
| | IV. 결론 |

<국문 초록>

주희 시경학이 한국 전통 시경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음에 불구하고, 종래 조선시대 시경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희 시경학과는 다른 성격 내지 반대되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주희설이 조선시대 시경학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그 수용·해석 양상이 구명되어야 조선시대 시경학의 전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소위 ‘반주자’·‘탈주자’로 일컬어지는 시경학의 성격도 보다 온전히 구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시경학에 수용·재해석된 주희 시경학의 면모를 고찰하여 조선시대 시경학의 다층적 면모를 밝히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상 주석서는 조선시대 주희설 수용 양상이 비교적 전형적으로 드러난 8종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조선 시경학에 드러난 주희 시경학에의 접근 시각과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120).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dansill@hanmail.net

내용은 道學 思想, 詩義 脈絡, 문헌 대상으로서의 측면, 우리말 언어 전환 과정 네 가지 방법이다. 본고의 텍스트 선정이 주희 중심적 주석 경향을 모두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조선시대 주희설 이해 양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데 발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詩經, 詩經學, 朱熹 詩經學, 朝鮮時代 詩經學

I. 서론

본고는 조선시대 시경학에 수용·재해석된 주희 시경학의 面貌를 고찰하여 조선 시경학의 다층적 면모를 밝히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시경학 연구는 주희 중심적(또는 尊朱) 시경설과 반주희적(또는 탈주희적)¹⁾ 시경설로 양분되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 시경학의 특징적·발전적 면모를 脫朱적 경향 속에서 모색하던 주체성 중심의 연구 경향에 기인하였다. 이 연구 방식은 초기 연구 단계에서 朝鮮時代 詩經學을 개관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필요한 작업이었으나 한편으로는 反朱 혹은 脫朱적 경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尊朱 경향의 詩經說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며 한국 경학의 연구 방향을 종합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점검하는 연구가 시작되면서²⁾, 脫朱的 경향에 집중된 지금까지의

1) 尊朱(從朱)·反朱(脫朱) 등의 용어 개념은 학계에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주희중심주의적 경전주석’과 ‘주희상대주의적 경전주석’이란 용어를 따로 사용하기도 한다(이영호, 『韓國經學資料集成』의 자료적 특징과 그 보완 및 연구의 방향-『韓國經學資料集成』所載 『論語』주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9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본고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논문이므로, 용어간의 엄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

2) 김경천, 「제17차 중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제;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 韓國에 있어서 經學研究의 現況과 課題」, 『중국학보』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적 견해가 제기되었다. 최석기는 탈주희적 성향의 한국 경학가들의 경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분야가 바로 “조선에서의 주희학설에 대한 발전 양상을 추적하는 일”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경호·류준필·이영호도 “주희학과와 실학과 의 대립구도에 못지않게 주희학자의 경학내부의 다양한 분기가능성을 천착하는 과제 또한 긴급하다고 생각된다.”⁴⁾고 하여, 조선 경학의 다각적 면모를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기존의 연구 경향에 더해 주희학과와 실학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 경학 연구에서 일어난 이러한 반성적 시각은 조선 주희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는데, 그 관심은 먼저 주희 경학사상의 정수를 반영한 『四書章句集註』에 대한 조선시대 註釋 연구⁵⁾ 및 성리학 연구에 보다 집중되었다.

조선시대 시경학 분야에서는 아직 주희 시경학 수용 양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 시경학은 朱熹 詩經學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까닭에, 조선 시경학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희 시경학의 수용·해석·取舍 면모를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희의 시경학은 『시경』이란 경전이 지닌 특수성과 함께 그에 따른 다양한 경학 연구법이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주희 철학사상의 중심이 되는 四書 註釋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

제38집, 한국중국어학회, 1998.

- 3) 최석기, 「韓國經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회』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한국경학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 4) 김경호·류준필·이영호, 「韓國儒學資料의 匯集과 電算化-“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희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 5) 대표 연구로, 조선조 주희학과와 『대학』 해석을 중국 주희학과와 『대학』 해석과의 대비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한 이영호, 『朝鮮中期經學思想研究』(경인문화사, 2004.)와 조선학술사상 주희학의 심화발전에 주목하여 우리 학술의 내재적 발전론을 이해하기 위한 각도에서 「大學章句」 개정을 연구한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改定과 그에 관한 論辨』(보고사, 2011.)이 있다.

의 수용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시대 시경학의 다양한 면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리학 등 철학사상적 문제가 강조된 주희 四書學의 수용에 대한 분석과는 또 다른 연구 방법 및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하여, 조선 시경학계에서 주희 시경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해석·取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시경학의 내재적 발전양상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尊朱的 시경론에 대한 정치한 논의를 생략한 채 편향적으로 탈주희적 시경론에 대해서만 연구를 지속한다면, 조선시대의 尊朱的 시경론이 지닌 내재적 맥락구조를 살피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尊朱的 시경론은 물론이고 脫朱的 시경론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는데도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주희 학파의 시경학 연구는 한국 경학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II. 기존 연구 성과 검토

우리나라의 경학 연구는 五經보다 四書에 편중되어 있다. 五經에 속하는 『시경』 연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까지 한국 연구자들의 조선시대 『시경』 주석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 史的 흐름에서 조선시기 시경학을 조망한 전문 연구는 김홍규, 『朝鮮後期 詩經論과 詩意識』(민족문화연구소, 1982.),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一志社, 1999.), 최석기, 「조선 중기 시경학」(『한국한시연구』 vol.6, 한국한시학회, 1998.), 이병찬, 『韓中 詩經學 研究』(보경문화사, 2001.), 줄고 『韓國朝鮮時期詩經學研究』(북경대 박사학위논문, 2010.), 付星星(남경대 박사학위논문,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조선 시경학의 특징적 면모를 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史的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점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연구저작은 이 기준점 선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령 김홍규는 문학론의 각도에서 조선후기 시경론의 淫詩說·詩序觀 등 쟁점을 살피고, 이를 尊朱派와 反朱派로 나눈 후 조선시대 시경학이 尊朱에서 反朱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와 함께 시경론을 조선후기 문학론과 접목시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논지의 중심을 反朱에 집중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고전문헌학의 각도에서 조선 시경학을 분석한 심경호는 시경학의 쟁점을 둘러싼 찬반 논의보다는 『시경』 내부의 音韻·詩解釋 문제 등이 조선 시대 학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현되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조선 시경학에 대한 논의의 깊이를 더하였는데 특히 李滉·正祖·丁若鏞 등 특정 학자의 『시경』 주석에 집중되어 있다. 최석기는 조선 중후기의 주요 주석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시경학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선 중후기 주요 시경학적 관점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서술 각도는 주희의 시경설과는 다른 경학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중심이 있다. 이병찬은 「詩序」의 작자문제·淫詩說·二南·賦比興 등 『시경』과 관련된 쟁점을 둘러싼 조선시대 경학자들의 관점을 비교·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쟁점에 대한 관점을 일별하는 데 도움을 주나, 쟁점을 중심으로 한 까닭에 쟁점 외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주희 詩經說이 우리나라 시경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줄고는 조선 시경학 연구의 특징을 諺解·朱熹說 중심의 論詩·문헌학 중심의 論詩·실학적 관점의 論詩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중 朱熹 詩經說을 중심으로 한 論詩를 조선시대 경학의 특징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분석 대상이 선별적이어서 보다 확장된 자료의 분석과 조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付星星은 朱子學 영향 하의 『詩經』 연구·실학사상과 『詩經』 연구·漢學 전통 回歸 경향의 『詩經』 연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중 朱子學 영향 하의 『시경』 연구로 權近·李滉·朴文鎬만 선별적으로 다루었다. 附錄의 「解題」 부분도 新說에 가치를 부여하는 구도로 서술되어 조선시대의 朱熹說 수용·

재해석 특징을 포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외 개별 단편 논문들도 대부분 주희 詩經說과 다른 면을 가진 새로운 『시경』 주석의 면모를 발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희 시경학이 조선시대 시경학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재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상황은 우리나라의 특징적 면모일 수 있는 주희 詩經說 중심의 『시경』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여로 인해 조선시대 시경학의 전모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시경학 연구도 우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초창기 중국 시경학 연구는 주로 주희의 詩經說을 비판하는 새로운 관점을 선호하여, 三家詩 등 毛詩 이전의 先秦詩經學·朱熹 이전의 漢唐詩經學·考證學의 방법론을 이용한 清代詩經學·인류학·민속학·문학관점을 적용한 近現代詩經學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元明代詩經學은 주희 詩經說의 답습이라는 인식 속에서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시경학사의 지속적 발전 맥락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시 朱熹 詩經學·宋元明代 詩經學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주희 시경학이 오랜 기간을 통해 「小序」를 따르는 입장에서 문학적 각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漢代 政教 각도에서의 『詩』 해석, 宋代 理學 사상의 영향을 받은 『詩』 해석, 주희의 문학관점이 반영된 『詩』 해석 등이 다원화된 것이 『詩集傳』이라는 견해가 자리 잡아가면서 주희 『詩集傳』의 어휘 사용, 문법 의식 등의 주석상의 특징, 詩義 해석상의 특징 기존 『詩』 해석 간의 異同 및 후대의 영향 관계를 고구하는 논의들이 등장했고, 주희 詩經說을 演繹한 개별 『시경』 주석서들도 연구되기 시작했다.⁶⁾ 이들 논저의 연구 방향은 주희 시경학의 특질 구현

6) 朱熹 詩經學을 연구한 주요 논저로는 檀作文,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李冬梅, 『宋代「詩經」學專題研究』,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吳洋, 『朱熹詩經學探研』,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郝永, 『朱熹「詩經」解釋學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包麗虹, 『朱熹「詩集傳」文獻學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向熹, 『讀朱熹詩集傳』, 『樂山師範學院

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희 시경학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시경학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선시대 시경학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희 시경학에 대한 다층적 측면 내지 내재적 맥락 구조를 읽어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韓國經學資料集成』의 자료에서 주희 중심적 주석 경향을 보이는 8종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주희 시경학을 수용·해석·取捨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외에 『집성』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주희 시경학을 우리나라 언어로 전환시킨 결과물인 校正廳本 『詩經諺解』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8종의 주석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權近, 『詩淺見錄』·韓汝愈, 『讀詩記疑』·李滉, 『詩釋義』·林泳, 『讀書筭記-詩傳』·李顯益, 『詩傳說』·正祖, 『詩經講義』·柳重教, 『詩講義發問』·朴文鎬, 『詩集傳詳說』. 물론 상기 텍스트가 주희 중심적 주석 경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주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은 후에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보다 전면적인 이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조선시대 시경학에서의 주희 시경학 수용과 재해석 양상

기존 조선 시경학 관련 논의는 주로 쟁점, 즉 총론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六義·正變·詩序의 作者문제·刪詩·淫詩說 등이 그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시경학에 수용된 주희 시경학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學報』, 第17卷 第2期, 2002. 등이 있다. 주희 시경학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이재훈은 「朱子 詩經學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를 비롯하여, 「周南」의 二稿本 『詩集傳』 遺文을 수집하고 이를 三稿本 『詩集傳』의 주석과 비교 분석하고(2001), 각 시편의 新舊傳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총론의 요지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론에서 드러난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총론만으로는 살피기 어려운 조선 시경학자들의 분석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漢唐 시경학과 대비되는 宋代 시경학의 대표로서 주희 시경학을 거론할 때, 그 성격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희 시경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여러 층차가 존재한다. 주희 시경학을 크게 구분하면 주희가 직접 말한 『시』설, 주희의 제자들이 주희에게 들은 내용을 옮기거나 천석한 『시』설, 후대 사람들이 주희의 설에 대해 논하거나 부연한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논의의 핵심은 주로 주희가 직접 언급한 『시』설에 집중될 수 있겠으나, 이 범주 또한 『시집전』과 『詩序辨說』간의 『시』설 同異 등 시기별 관점 차이가 존재하며, 주희 『시집전』 자체도 二十卷本·八卷本 간의 판본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학자들이 수용한 주희 시경학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쟁점간의 비교 외에 시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시경』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양한 범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조선시대 주희 『詩集傳』을 중심으로 한 무수한 담론들이 정당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경학에 수용된 주희 시경학에의 접근 시각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道學 思想, 詩義 脈絡, 문헌 대상으로서의 측면, 우리말 언어로의 전환적 측면에서 주희설이 取捨되는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수용·이해 양상의 주요 각도를 일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道學思想 중심의 朱熹 『詩』觀 選取

주희의 『詩經』 해석에는 義理 정신의 발양을 중시하는 주희의 학문 경향이 곳곳에 담겨 있다. 檀作文은 주희의 詩教 가운데 思無邪論이나

‘溫柔敦厚’·‘女子貞信’·‘君臣之義’·‘民本思想’ 등의 논제에서 주희의 理學 觀點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⁷⁾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시경』 주석서인 權近(1352-1409)의 『詩淺見錄』은 바로 道學의 사상 체계에서 주희의 『詩經』 해석을 수용한 대표 주석서에 해당한다. 권근의 도학적 관점은 正變論과 관련된 『詩』 해석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인이 (중략) 노래 가운데 옳한 것을 기록해 선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그 옳한 내용을 기록해 안일한 뜻을 懲創하여 제멋대로 흐르는 데서 人欲을 막고, 이미 끊어진 데서 天理를 보존하였으니 비록 심히 훼손되고 어지러운 극치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환의 이치를 보여주어서 변화되어[變] 다시 바름[正]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⁸⁾

상기 인용문은 권근이 『詩經』의 二「南」을 正으로 보고 十三「國風」을 變으로 보는 구도를 正變의 순환논리로 파악하고자 한 논의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권근이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막는다[存天理, 遏人欲]’라고 한 언급은 程頤가 제기한 理欲觀에 해당하며, 후에 朱熹·王守仁 등의 학자들에게 계승된 바 있다. 權近은 이 도학관념과 ‘變而復正’의 변증논리를 적용한 『詩經』의 正變觀을 긴밀하게 연관시킴으로써 『시경』 편찬 체계에 도학 사상적 요소를 강하게 개입시켰다.⁹⁾

주희는 때로 天理나 人欲과 같은 道學 概念을 사용해 「國風」詩를 분석하였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려하지는 않은 듯하다.¹⁰⁾ 詩篇 해

7) 檀作文,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pp.220-261. 참조.

8) 權近, 『詩淺見錄』, 『韓國經學資料集成』 제71책, 『詩經』(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18, “聖人……錄其善以感發其善心, 著其惡以懲創其逸志, 遏人欲於橫流, 存天理於既滅, 雖甚壞亂之極, 而必示循環之理, 使知變之可以復正也.”

9) 관련 논의는 줄고, 『韓國朝鮮時期詩經學研究』, 萬卷樓, 2012, pp.112-113. 참조.

10) 「國風」에서 주희가 天理나 人欲 개념을 詩篇 해석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鄘風·鶉之奔奔」·「秦風·無衣」편 정도에 그친다. 그 외 「雅」·「頌」 분석에

석 중 道學 관련 내용을 언급할 때도 範祖禹나 陳祥道の 관련 분석을 재인용하는 등 자신의 언어로 제시하기보다 기존 道學家의 언어를 원용하였다. 「國風」의 正變論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보다 文中子(580-617)의 관점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¹⁾ 이러한 서술 방식은 주희가 正變說에 대해 고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보인 것¹²⁾과 상통한다. 權近은 바로 주희의 天理·人欲 관련 道學 명제 및 ‘變而復正’의 변증 논리를 강화하여 자신의 도학적 『詩經』 해석 인식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된다.

흥미로운 점은 권근이 詩篇 해석의 과정에서 도학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불교 사상을 배척하는 언급을 포함시킨 점이다. 「召南·騶虞」편 해석에서 권근은 주희의 견해를 따라 騶虞를 동물로 상정하고 동물을 번성하게 키워 祭祀나 賓客의 禮에 사용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만약 이러한 동물들을 적시에 없애지 않는다면 작게는 사람의 음식을 소모케 하고 심하게는 사람을 먹는 폐해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異端의 학문[佛敎를 가리킴]은 人道를 끊어버리고 禽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자 하니 이는 장차 인류를 줄어든게 하고 짐승을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짐승들을 끌어다가 인류를 해치는 격이라고 비판하였다.¹³⁾ 詩義와 무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 佛敎를 비판

서도 몇 차례 상기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나 권근의 『詩』 분석은 「국풍」에만 국한되어 있다.

- 11) 朱熹, 『朱子全書』 第1冊, 『詩集傳』 卷8, 「國風·七月」, p.541, “程元問於文中子曰: ‘敢問「國風」, 何風也?’ 曰: ‘變風也.’ 元曰: ‘周公之際, 亦有變風乎?’ 曰: ‘君臣相誚, 其能正乎? 成王終疑周公. 則風遂變矣. 非周公至誠, 其孰卒正之哉!’ 元曰: ‘居變風之末, 何也?’ 曰: ‘夷王以下, 變風不復正矣, 夫子蓋傷之也. 故終之以「國風」, 言變之可正也. 惟周公能之, 故係之以正, 變而克正, 危而克扶, 始終不失其本, 其惟周公乎! 係之國, 遠矣哉.’” 상기 인용부분은 『文中子中說』 卷4, 「周公」편에 보인다.
- 12) 朱熹, 『朱子全書』 第1冊, 「詩傳綱領」, p.345, “正變之說, 經無明文可考. 今姑從之.”

한 부분은 權近이 詩篇의 해석 과정을 통해 道學思想을 발양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權近이 正變 구도를 원용해 「國風」의 道學的 인식을 구축하였다면, 韓汝愈(1642-1709)는 『詩經』이 孔子의 편찬의도를 반영하였음을 전제하고 「風」·「雅」·「頌」 전체를 正變 구도에 편입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¹⁴⁾ 한여유가 인식한 孔子의 編『詩』 의도는 바로 「大學」 ‘正心誠意·修齊治平’의 功用 및 仁의 ‘功用體段’에 대한 체현¹⁵⁾에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의 正變論 또한 이 구도 안에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여유의 正變論은 주희의 國風民歌說·淫詩說 및 正變論을 詩篇 해석에 적용시킨 錯簡說¹⁶⁾ 등을 수용한 바탕 위에 “毛公이 『詩』를 전하는 과정에서 錯簡이 발생해 孔子의 당초 의도와 어긋나는 編次부분”¹⁷⁾을 조정함

- 13) 權近, 『詩淺見錄』, 『韓國經學資料集成』 第71冊, 『詩經』(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12, “蓋人爲萬物之主, 而萬物爲人之用者也. 故供祭祀奉賓客之事所當用物以成禮, 是其所以繁育者使其不乏於所用也. 又況禽獸多而不去, 則必逼人而爲害, 故爲搜狩之禮以時舉行, 獵而殺之, 驅而逐之, 以除其害也. 夫禽獸其類甚衆, 其生甚繁, 苟不除之, 則微者耗人之食, 暴者食人之軀, 人將無以生矣. 異端之學, 絕滅人道, 而不欲加害於禽獸, 將使人類漸少禽獸益多是率獸而戕人倫也.”
- 14) 韓汝愈가 正變 구도로 「風」·「雅」·「頌」을 구분한 특징에 대해서는 최석기, 「韓汝愈의 學問性向과 詩經學」, 『漢文學報』 제1집, 우리한문학회, 1999, pp.215-220. 참조.
- 15) 韓汝愈, 『遁翁先生文集』 卷3(충간b44책), 「經史記疑·詩經記疑」, p.476, “首以「國風」之正變, 次以小·大「雅」之正變, 次以「周」·「魯」之「頌」而終於「商頌」……「關雎」·「鵲巢」之化, 逮于「麟趾」·「騶虞」, 意誠心正之功, 熏蒸透徹, 融液周遍, 此非仁之功用乎!……嗚呼, 詩篇之次, 可以見吾夫子之深意, 示人以仁之功用體段, 不亦章章乎!”
- 16) 주희가 제기한 詩篇 錯簡說에 대해서는 이재훈,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330-331. 참조.
- 17) 韓汝愈, 『遁翁先生文集』 卷3(충간b44책), 「經史記疑·詩經記疑」, p.477, “此十三篇, 君臣契合, 親戚敦睦, 夫婦得正, 雍雍愉愉, 宛然有「南有嘉魚」·「南山有臺」之遺音, 必是正「小雅」之錯簡也.” 여기의 13편은 주희의 錯簡說에서 언급한 14편 가운데 「頌弁」·「裳裳者華」·「桑扈」·「隰桑」·「魚藻」·「鴛鴦」·「車輦」·「采芣」·「瞻彼洛矣」의 9편만 동일하고 「無羊」·「斯干」·「鶴鳴」·「瓠葉」편

으로써, ‘正—變—變極—變之可正’의 해석구도를 제시하였다. 正變의 논의 범주를 「風」·「雅」에 국한시키지 않고 「頌」까지 확대하였으며 다시 개별 詩篇간의 내용 관계까지 확장시킴으로써,¹⁸⁾ 기본적으로 주희의 正變論과 기본 『詩』해석 입장을 수용하는 구도에서 자신의 도학적 이론 틀을 개입시킨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權近과 韓汝愈의 『詩經』 해석에는 모두 道學 思想으로 『詩經』 체제와 詩篇 내용을 이해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正變論 해석 구도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正變說은 본래 주희 『詩經』 해석의 핵심부분이기보다는 주희가 鄭『箋』에서부터 전해온 개념에 대해 고증할 방법이 없어 유보적으로 따른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근과 한여유는 이 正變論을 적극적으로 選取하여 도학 사상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도학 사상을 개입시킨 正變 구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조선시대에 도학 사상의 각도에서 『詩經』을 이해하고자 한 학자들이 주희 『시』설을 選取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2. 詩義 脈絡 중심의 주희 『詩』說 選取

近代 이래 『詩經』을 텍스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詩經』의 언어로 『詩經』을 이해하는 것이 『詩經』 독해의 정석으로 간주되는 현대에 견주어 볼 때, 조선시대 내지 전통 시기의 학

이 다르다.

18) 韓汝愈, 『遁翁先生文集』 卷3(충간b44책), 「經史記疑·詩經記疑」, pp.476-477, “首以「周南」·「召南」者, 所以著明文王風化之盛, 而使後世之修身齊家治國平天下者, 得以取法焉. (變「風」)……其爲變也, 一國甚於一國, 以至於「秦風」則……其變極矣.……于以見吾夫子知秦滅周之機而深惡之也……亂極則自當思治, 故係之以「檜」之「匪風」·「曹」之「下泉」, 思周之詩, 以示循環之理, 以言亂之可治, 變之可正也. 於是次之以「邠」, 反之於周公……「頌」亦然矣, 以「商頌」繼「魯」之變「頌」而終之者, 示可以變禮樂之崩壞而至於先王之正樂也.”

자들이 주희나 기타 주석서의 관점을 거치지 않고 『詩經』을 이해하는 일은 상당히 낮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학자들이 드문 까닭에 중국에서는 전통 시기 문학 각도에서의 『詩經』 해석을 발굴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전통 시경학사에서 『詩經』 詩篇의 문자 의미대로 詩를 해석하고자 한 학자들이 드문 바와 같이 조선시기도 이러한 학자들은 거의 드문 것으로 조사된다. 본 소절에서는 조선시대에 주석을 통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讀『詩』에 따라 詩義 脈絡을 중심으로 주희 『詩集傳』의 관점을 選取한 李顯益과 林泳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李顯益(1678-1717)의 「詩傳說」에는 10條의 詩篇 감상이 수록되어 있다. 양은 적지만 그의 『詩經』 해석 입장이 일관되게 반영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현익은 대부분 조항에서 語義 내지 文義의 원만한 맥락을 통해 詩篇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주희의 詩篇 해석이 語義·文義를 천착한다고 고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齊風·甫田」篇 제1장은 “큰 밭일랑 같지 말게나, 가라지만 무성할 테니. 멀리 있는 사람일랑 생각 말게나, 마음만 애타게 괴로울 테니. [無田甫田, 維莠騫騫. 無思遠人, 勞心忉忉]”라고 노래한다. 이 章에 대해 주희는 “당시 사람들이 작은 것을 싫어하고 큰 것에 힘쓰며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고 먼 것을 도모하면 부질없이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게 됨을 경계한 것”¹⁹⁾이라고 풀이하였다. 이현익은 주희의 해석 가운데 후자는 詩篇 語義에 나타나지만 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 시는 단지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헛되이 마음을 애태우는 이에 대해 甫田을 보고 興을 일으키고 그 헛됨을 빗댄[比] 것으로 보아야 文義가 훨씬 平易하다고 파악하였다.²⁰⁾ 이를 통해 이현익이

19) 朱熹, 『朱子全書』 第1冊, 『詩集傳』 卷5, 「齊風·綱繆」, p.487, “以戒時人厭小而務大, 忽近而圖遠, 將徒勞而無功也.”

20) 李顯益, 『正菴集』 卷8(충간b60책), 「雜著·詩傳說」, p.315, “此章朱子以下皆以‘無田甫田’爲‘厭小務大’之比, ‘無思遠人’爲‘忽近圖遠’之比. 然此章語意, 似只是

詩篇의 語句에 나타난 의미로 詩意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朱熹의 시 해석은 바로 자신의 詩意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참조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조계를 통해 詩義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시 해석의 부분만을 선취할 수도 있고 『詩』說의 전후 관점이 다른 경우 한 쪽을 선취할 수도 있다. 이현익은 자신이 파악한 語義·文義에 의거하여 주희설을 선취하기도 하였다. 「唐風·綱繆」편에 대한 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小序」에서 “이 시는 쫓나라가 어지러워 남녀의 혼인이 제 시기를 얻지 못함을 비판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朱子가 이를 辨說하여 “이 시는 다만 결혼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어 기뻐하는 말일 뿐이며 굳이 진나라의 혼란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詩集傳』에서는 도리어 나라가 어지러워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째서인가? 『詩集傳』에서 나라가 어지러워 시기를 놓쳤다는 말만 했지 그것을 비판한[刺]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小序의 관점과는 분명 다르다. 그렇지만 詩篇의 내용 가운데는 나라가 혼란스러워 시기를 놓쳤다는 의미가 등장하지 않으니 「詩序辨說」의 관점이 옳다고 하겠다.”²¹⁾

이현익이 「綱繆」편을 읽은 바에 따르면 텍스트의 文義 상에는 나라의 혼란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文義를 중시하던 그였기에 주희의 「綱繆」편에 대한 초기 관점인 「詩序辨說」의 해석을 선호하고 반면 주희가 왜 나중에 『詩集傳』에서 관점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의거하면 이현익의 讀『詩』 방식은 자신이 이해한 語義·文義의 맥락을 중심으로 주희의 『詩』說을 검토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성격은 도학적 각도에서 『시집전』의

以‘無田甫田’比‘無思遠人’耳。蓋有思想遠人徒勞其心者，故以甫田起興，且比以言其無益耳。……如此看，文義更平易。”

21) 李顯益, 『正菴集』 卷8(총간b60책), 「雜著·詩傳說」, p.315, “「小序」以此詩爲‘刺晉，國亂而婚姻不得其時’。朱子辨之曰：‘此但爲婚姻者相得而喜之詞，未必爲刺晉國之亂。’『註』却以國亂失時爲言，何也？『註』只言國亂失時而不言其爲刺，則與「小序」之說固不同。然詩中不見有國亂失時之意，「序辨說」恐是爲正。”

내용을 이해·수용하는 입장과 분명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현익 외에 詩義 맥락을 중심으로 주희설을 이해한 학자로 林泳(1649-1696)을 들 수 있다. 이병찬은 임영의 『讀書筭錄』에 수록된 66條目 『詩』說에 대해 ‘朝鮮刊『詩經大全』의 誤脫字 矯正과 諺解 誤謬 指摘’, ‘朱子說에 대한 異議提起’, ‘精密한 賦比興 分析’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임영이 “西人系列의 학자로 당시 권위를 자랑하던 『詩集傳』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주자의 시경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주자 시경설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배척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설의 미진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병찬의 논문은 임영의 詩說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주희설의 미진함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임영의 『詩』 해석 경향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주희설의 미진함을 보완하는 다른 학자들의 『詩』說과 변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付星星은 『시집전』을 발양하거나 회의한 부분, 『시전대전』을 분석하거나 교감한 부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²²⁾ 이 또한 각 해당 조항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분석한 특징이 있지만 임영 『시』설의 특징이 『시집전』을 위주로 하며 『시전대전』을 분석한 것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임영의 주희 『시집전』에 대한 수용 양상의 세부적인 특징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영의 주희설에 대한 관심이 詩義 맥락의 규명에 중점적으로 놓여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의 주희 『詩集傳』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영의 『讀書筭錄·詩傳』의 서술상의 특징은 詩篇에 대한 확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보다 『시전대전』을 중심 판본으로 하여 『시경』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느낀 감상과 의문점을 자유롭게 기록한 성격을 지닌다. 서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미를 모르겠다[未詳其意·未曉其義]’ 등의 표현들²³⁾은 바로 임영의 詩說이 단정적이기보다 유보적이며, 고증적

22) 付星星, 『朝鮮時代「詩經」學研究』, 南京大 博士學位論文, 2012, pp.41-50.

인 성격보다 감상적인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서술이 확정적이지 않아 그의 관점을 뚜렷이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해석 과정에 담긴 임영의 의식 흐름을 읽어내는 데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영은 해석자마다 詩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퇴계의 관점을 지지한다.²⁴⁾ 이에 의거할 경우 임영이 詩義를 이해하는 과정은 자신이 『詩』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의 체계적인 가이드는 『시집전』과 『시전대전』의 小註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서는 「鄭風·揚之水」편의 감상 내용을 통해 임영 『詩』說 경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를 형제간에 서로 나눈 것으로 파악하면 뜻이 절로 평이해지고 심히 간절하다. 지금 (『詩集傳』에서와 같이) 兄弟를 婚媾關係로 파악할 경우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게다가 시의 ‘이미 형제가 적어, 나와 너뿐이니’ 구절에서 등장하는 ‘나’와 ‘너’ 두 사람은 시를 지은 사람이 兄弟가 적어 단지 두 사람 뿐인 까

23) 임영의 이러한 시 이해 방식은 그가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까지의 사유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해결되지 못한 지점까지 제시될 수 있다. 일례로 「雨無正」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匪舌是出, 『傳』謂非但出諸口, 其意未詳. 竊意非如小人好莠之言, 只出於口舌間也. 乃中心感憤之發, 故實有悻於其躬也. 但如此則與俾躬處休者意不相對, 亦未知其果是也.”(林泳, 『滄溪集』 卷19(충간159책), 「讀書筭錄詩傳鄭風揚之水」, p.437.) 주희가 “匪舌是出” 구절을 “비단 그 입에서 나올 뿐 아니라”로 해석한 데 대해, 임영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소인이 아침을 좋아하는 말만 입에서 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해석이 이 구절과 대구를 이루는 아래의 “俾躬處休” 구절과 의미상 대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서술 내용에 따르면 임영이 詩義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형식상의 對句와 의미상의 對句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해석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

24) 林泳, 『滄溪集』 卷19(충간159책), 「讀書筭錄詩傳周南·芣苢」, p.428, “或疑此詩無味, 余謂退溪有言·作歇後看則歇後, 作非歇後看則非歇後, 今此詩亦然. 作無味看則無味, 作非無味看則非無味. 蓋婦人無事, 相與采此芣苢以相樂. 其辭從容詳複而有和平之氣. 其意一於所事而有專靜之象. 若變風婦人行游之作, 必不能如此. 比下章喬木之詞, 尤爲精粹. 學者善讀之, 則勿忘勿助之間, 自有行其無事之意矣.”

답에 이렇게 말한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부부라면 남편 한 명에 아내 한 명으로 각기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적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兄弟로 보는 뜻이 자못 분명할 듯한데 『詩集傳』 편찬 시에 이에 대해 나아가 질정을 구하지 못해 한스럽다.²⁵⁾

임영은 이 詩句에 등장하는 ‘兄弟’를 男女間으로 풀이한 『詩集傳』의 해석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뜻이 평이하고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보았다. 임영은 다시 『詩集傳』의 해석 관점을 따라가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男女, 내지 夫婦 관계가 서로 쌍을 이루는 구도에서 ‘적다’는 개념이 여전히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렇듯 임영은 자신의 「揚之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감상을 서술하였다. 임영의 문제의식과 해석 방식은 道學思想이나 微言大義 등의 곡해를 배제하고 『詩經』의 本意를 구명한 시경학자로 평가받는 方玉潤(1811-1883)의 관점²⁶⁾과 상통하는데, 이는 임영의 해석 방식이 詩義의 직접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방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임영은 또한 詩篇의 언어 표현에 소위 淫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淫詩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鄭風·揚之水」가 淫詩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희의 淫詩說을 인정하였지만 淫詩로 간주되는 시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는 임영의 詩義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詩集傳』 주석의

25) 林泳, 『滄溪集』 卷19(중간159책), 「讀書筭錄詩傳鄭風揚之水」, p.433, “此詩只作兄弟相語之詞, 意自平易, 亦甚懇到. 今以兄弟爲婚媾, 已不免費力. 且所謂‘終鮮兄弟, 惟予與汝’, 惟予二人者, 定是作詩之人, 兄弟不多, 只有兩人, 故其言如此耳. 若夫婦則一夫一婦, 自是常分, 豈可謂之終鮮乎! 此義頗似分曉, 恨不及就質於『集傳』時也.”

26) 方玉潤, 『詩經原始』, 中華書局, 2006, p.222, “「揚之水」 闕疑……此詩終不可解……終鮮兄弟, 惟予與汝, 是兄弟二人自相告誡之辭, 非言臣與士也……至『集傳』則以爲淫女相謂其所私之言, 其於‘兄弟’字更不可通.”

27) 林泳, 『滄溪集』 卷19(중간159책), 「讀書筭錄詩傳鄭風揚之水」, pp.433-434, “或

선취 태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동일하게 주희의 淫詩說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범위로 주희의 淫詩說을 수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 이에 의거하면 임영이 주희설을 세밀히 분석하고 小註를 비교검토했던 최종목적은 주희설의 완전한 이해에 있다기보다 자신의 이해 구도 안에서 詩義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임영은 詩義의 맥락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詩義의 표현방식인 賦比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의 문학적 감상 성향을 읽어낼 수 있다.²⁸⁾

임영의 『시경』 해석은 詩義의 감상을 중심으로 한다. 간혹 문자의 脫誤나 名物의 혼고를 고찰하는 내용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시집전』과 小註의 관점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논리에 합당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논지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임영의 『시경』에 대한 문학적 감상은 자신이 인식한 시편의 내용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임영의 讀『詩』 방식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임영은 『詩集傳』과 『詩傳大全』 小註의 참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詩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의 詩篇에 대한 문학적 감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의거할 때 임영의 『시집전』에 대한 수용은 文義의 문학적 각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현익과 임영은 주희설의 詩義 이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향은 詩義의 맥락에 대한 이해

謂自昔說『詩』者只以「東門之墀」「溱洧」二詩爲淫奔之詩，至朱子又以淫奔斥此詩者，正以發明放鄭聲之旨，其義不可易也。此又不然。凡朱子以淫奔斥之者，其詞皆本爲淫奔之詩，故朱子始得其情而斥之耳。苟其詞義有不然者，亦豈強斥之哉！且此詩之外，淫奔之詩，已不勝多，亦何損於鄭聲之可放哉！且夫婦得其別而後，兄弟得其序。今有信人言而不能於兄弟者，是亦淫亂之流禍，於此亦可以觀矣。”

28) 林泳, 『滄溪集』 卷19(충간159책), 「讀書筭錄詩傳·谷風之什·大東」, p.440, “五六七章, 乃玉川子「月蝕」之祖。但詩義雖是寓言, 皆爲直陳之辭, 其體賦也。”

를 중시하는 그들의 사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희설 접근방식은 도학 사상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과도 선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헌 대상으로서의 朱熹 註釋 選取

조선시대 시경학은 다양한 문헌을 통해 고증학적 접근을 시도하기에는 참고 가능한 텍스트가 제한적이었으며 주희의 『詩集傳』이나 이를 演繹한 胡廣의 『詩傳大全』 정도가 중심 텍스트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주희설을 중심으로 『詩經』을 이해하게 마련이며 그의 정확한 이해는 그들의 科擧 합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희설의 詩旨·字句義와 관련된 해석을 천착하거나 절대화시키는 언급이 조선시대 문헌에 다량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주희설을 ‘경전화된 주석서’로 보다 ‘경전에 대한 주석서’로 객관화시키는 인식들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희설이 다른 주석 관점과 비교·검토되면서 주희 『詩』說의 前後 차이나 다른 『詩』說間의 차이를 다루는 논의들이 보다 다양하게 제기되며 주희가 인용한 관점들에게 대한 분별적 인식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가 바로 정조의 『詩經講義』라 할 수 있다.

심경호는 正祖 『詩經講義』의 주희설에 대한 입장은 주희 『詩』說의 前後·詩篇間·經典間 차이, 주희 『詩』說과 『詩傳大全』 小註간 차이, 주희 『詩』說과 他說間 차이를 대조·검토함으로써 주희설의 정통성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²⁹⁾ 이 분석은 『시경강의』에서의 서술 논리가 주희설을 주요 구심점으로 하고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필자는 기존 연구 관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시경강의』에서의 주희설 검토가 주희설의 정통성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것 뿐 아니

29) 심경호, 『朝鮮時代 漢文學과 詩經論』, 一志社, 1999, pp.527-528 및 p.554.

라 주희설이 정조가 자신의 『시경』 이해 과정에서 주요한 참조계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는 일례로 정조가 「召南·騶虞」편의 騶虞와 「商頌·玄鳥」편의 玄鳥가 과연 實在하는 동물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條問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玄鳥를 다룬 부분을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玄鳥가 商의 조상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 『毛傳』에서는 “春分에 玄鳥가 내려올 즈음 湯의 先祖가 郊禱에게 기도해 契를 낳은 것은 하늘의 명을 받은 것에 근본하여 제비가 오는 시기에 낳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鄭玄은 『史記』와 讖緯書에 제비가 남긴 알을 삼켰다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朱子 『詩集傳』에서 이를 따랐다. 그러나 宋代 儒者 가운데 歐陽脩와 蘇東坡 이하 모두가 이를 허망한 말이라 극력 배척하면서 “성인이 태어남은 陰陽의 精氣가 쌓이고 英明한 元氣를 받는 것이거늘 어찌 微物인 새의 알을 취할 리가 있겠는가!”라 하였으니 이것이 正論이라 할 수 있다. 『朱子語類』에는 “제비가 알을 떨어뜨렸는데 그러한 이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자가 “당시에 그렇게 말하였으니 지금 그러한 일이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鄭玄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詩集傳』의 “郊禱에게 기도하였다.”고 한 구절도 『毛傳』의 뜻을 겸하여 취한 데서 나온 것일 듯하다. 『詩經』의 앞뒤로 각각 등장하는 이 두 鳥獸의 이름은 說『詩』家들의 큰 의문인데 이에 대한 질충된 해석을 듣고 싶다.³⁰⁾

정조는 騶虞를 『毛傳』·『六韜』를 따라 짐승명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官職名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한 뒤 ‘玄鳥가 商을 낳았다’는 것을

30) 正祖, 『弘齋全書』 卷106(총간265책), 「經史講義四十三·總經一」, pp.163-164, “玄鳥生商, 『毛傳』云: 春分玄鳥降, 湯之先祖, 以是時祈于郊禱而生契, 故本其爲天所命, 以爲玄鳥至而生焉. 至鄭康成引『史記』及讖緯書, 乃有遺卵取吞之說, 而『集傳』因之. 然宋儒自歐蘇以下, 無不力斥其妄曰, 聖人之生, 儲陰陽之精, 稟元氣之英, 安用此微禽之卵哉! 其論可謂正矣. 按『語類』有問: 玄鳥墮卵, 亦有此理否? 朱子答以當時恁地說, 今不可定其必無, 則蓋亦姑因鄭說, 而『集傳』中‘祈于郊禱’一句, 亦出於兼取『毛傳』之意歟! 此鳥獸之見於三百篇首尾, 而爲說詩家大疑案者, 欲聞折衷之解.”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하였다. 「玄鳥」의 서술은 영웅의 誕生 神話와 관련된 서사시적 색채를 띠고 있다. 정조는 우선 이 신화적 관점이 『毛傳』에서 등장하고 『鄭箋』에서 『史記』와 讖緯書를 통해 보강된 후 다시 주희 『詩集傳』에 수용되는 관점의 史的 傳承 과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 중 주희의 관점에 대해서는 『詩集傳』의 해당 주석만 참고하지 않고 『朱子語類』의 관련 언급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歐陽脩나 蘇東坡와 같이 神話 지향을 거부하고 도학적 理氣論을 지향하는 宋代 유학자들에 의해 비판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자 하는 정조의 인식을 아울러 반영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마지막으로 玄鳥와 騶虞에 대해 『시경』에 등장하는 禽獸의 범주에서 납득할 만한 ‘절충된’ 해석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조의 『시』 분석의 네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첫째는 『詩集傳』에 제시된 특정 詩說의 史的 起源 고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는 주희설에 대한 이해가 『詩集傳』에 국한되지 않고 『語類』 등의 문헌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는 주희 『시집전』에 반영된 문학적 감성이 농후하게 개입된 說話的 색채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詩篇 해석을 선호한다는 점, 넷째는 『詩經』의 특정 주제와 대상에 대해 범주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해석 경향은 주희설을 중요한 참조계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주희설의 연원 및 내부 정합성 고찰 및 他說과 비교 검토 과정 속에 정조 자신의 『시경』 문헌에 대한 해석 인식을 담아내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한 까닭에 정조의 주희설에 대한 인식은 주희설을 경전화하는 각도에서 벗어나 주요 경전 주석의 한 대상으로 분석되고 選取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주희설을 기존 설의 한 관점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의 해석 관점으로 운용한 또 다른 예로 柳重教(1832-1893)를 들 수 있다. 유중교의 詩說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鄒國平³¹⁾이 있다. 오국평은 유중교가 그의 스승 李

31) 鄒國平의 관련 연구는 「주희의 『시』설에 대한 柳重教의 질의: 『詩講義發文』

恒老와 함께 주자학의 근본 권위는 절대적으로 옹호하지만 『시집전』의 세부분제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파악하면서,³²⁾ 유중교가 일부 주희 詩說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다른 학파의 관련 견해에 대해 수용하는 면을 보이므로 주자학에 대한 일종의 혁신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³³⁾ 오국평의 논의는 기존 조선시대 시경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중교의 詩說을 깊이 있게 분석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유중교의 『시집전』의 특정 주석에 대한 發問이 곧바로 해당 해석에 대한 회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중교의 28조항의 발문 가운데, 鄒國平이 유중교의 주희설에 대한 회의적 관점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6조항 정도인데, 그 외 20여 조항은 詩篇에 대한 일반적 이해 및 감상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朱熹說에 대한 회의와 반론만으로는 유중교 發問의 핵심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유중교 문집에서의 관련 언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정조의 『시경강의』에서도 보았듯이 朱熹 前後說 차이나 異說을 거론한 부분에는 주희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도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볼 경우, 유중교의 發問이 丁亥年(1887)과 戊子年(1888)에 講會에서 제자들의 『詩』 학습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희설에 대한 회의보다 주희설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중교 「詩講義發問」에 대한 평가 및 유중교 『詩』說의 성격은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柳重教 『詩』說은 주희설을 여러 『시』설 가운데 하나, 즉 객관화된 대

을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 vol.15, 한국철학사연구회, 2004, pp.83-24.)와 이 논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柳重教『詩講義發問』質疑朱熹『詩』說問題研究」(『域外漢籍研究集刊』 第一輯, 中華書局, 2005, pp.197-207.)가 있다. 본고의 인용은 2005년판 수정본에 의거한다.

32) 鄒國平, 앞의 논문, p.198.

33) 鄒國平, 앞의 논문, pp.206-207.

상으로 파악하는 특징 및 주희의 문헌과 관점을 선택적으로 演繹해 『시경』의 교화 작용을 강조한 특징을 지닌다. 주희설의 前後間 차이 비교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28조항 중 4조항이 해당하며 그 외 淫奔詩의 작자를 ‘淫奔者自作’으로 보는 주희 관점에 대해 여조검과 왕양명의 설을 들어 논란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주희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비교·검토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발문은 거의 없다. 발문 내용은 주로 篇章이나 詩篇 감상이 많으며 주희 외의 학자들 간의 관점 비교나 주희가 『詩集傳』에 인용한 說 및 『시전대전』 소주의 특정 설과 주희설과의 의미 차이에 대한 경우이다. 따라서 「발문」에 의거할 경우 유중교의 논의에는 朱熹 『詩』說은 절대적 이해대상이기 보다 詩篇 이해를 위한 선별적인 참고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詩』의 교화 작용을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희가 『儀禮經典通解』에 수록해 둔 「開元樂譜風雅十二篇」에 의거하여³⁴⁾ 『詩經』 樂章을 鄕校·書社에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는 秦漢 이래 이미 『詩』의 음악원형을 고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唐代的 「開元樂譜風雅十二篇」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악보라고 추정한 주희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중교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시키려는 의도는 그의 주희 관점에 대한 재해석과 운용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大東風謠』에 대한 평으로 작성한 「東謠律格」에서 유중교는, 조선에서 전래되던 토속음악을 한글로 정리해 놓은 『大東風謠』의 성격이 「國風」과 같다는 언급과 함께, 감응한 바에 샅됨과 바름이 섞여있고 언어표현이 猥雜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忠臣·孝子·偉人·壯士의 언어도 그 사이에 들어 있으므로 안목을 갖춘 자가 이를 가려서 노래 부를 경우 사람을 감응시키고 풍속을 교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³⁵⁾ 이 부분에도 「國風」을 民間의 토속적이고 서민적이며 猥雜스러

34) 柳重教, 『省齋集·別集』 卷4(중간324책), 「絃歌軌範第三·樂章」, p.546, “朱子以爲古聲既不可考, 此論者註:「開元樂譜」足以見聲歌之彷彿, 收載于『儀禮經傳通解』.”

35) 柳重教, 『省齋集·別集』 卷4(중간324책), 「絃歌軌範附錄詩律新格·東謠律格」,

은 歌謠로 파악하는 주희의 대표 『詩』觀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入樂되는 詩篇의 선정에 있어 「邠風·七月」·「鄭風·女曰雞鳴」 등을 入樂시킬 뿐 아니라 한글로 번역해 諷誦하게 하였는데,³⁶⁾ 이는 소위 ‘正風’에 속하는 二「南」이나 ‘正「雅」’에 제한시킨 주희의 방식과도 다르며³⁷⁾ 「開元樂譜風雅十二篇」의 編目이나 『儀禮』의 기록에 의거한 것도 아니다. 「發問」에서도 「禮記·學記」의 「小雅」 연주 및 笙詩³⁸⁾ 등 『詩經』의 연주³⁹⁾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詩經』의 음악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詩經』의 음악화 과정에서의 고민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詩經』의 접근 방식은 권근 등의 도학 사상적 접근과는 달리 『詩』의 교화 작용에 대한 실용화에 중점을 둔 과정에서 발생한 運用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4. 우리말 언어 전환 과정에서의 주희 『詩』說 반영

주희의 『詩經』 해석에 따라 『詩經』을 우리말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p.567, “東人士音歌謠流傳者甚多, 中古何人收取之, 譯以訓民正音字, 名曰‘大東風謠’, 是亦「國風」也. 顧其中所感之邪正不一, 而音旨之猥雜者居多. 然忠臣·孝子·偉人·壯士之詞, 亦往往出於其間. 具眼者擇焉而歌之, 其於感人化俗, 亦不無所補.”

36) 柳重教, 『省齋集』 卷45(총간324책), 「柯下散筆·柳氏家典·事親第三」, p.436, “男少者二人, 就堂南端, 北面歌『詩』, 鼓琴以爲節, 或間歌或合歌, 歌二「南」諸篇及「邠·七月」·「鄭·女曰雞鳴」之類(諸詩合入樂章者, 別抄爲一卷, 譯以諺書, 附以解說, 令婦女乘間省閱, 畧曉大意, 歌時亦用諺語諷誦之.)”

37) 이제훈,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128-129.

38) 柳重教, 『省齋集』 卷34(총간324책), 「詩講義發問(丁亥秋)」, p.186, “「南陔」·「白華」·「華黍」·「由庚」·「崇丘」·「由儀」, 此六篇本傳以爲笙詩也, 有聲無詞. 若本無詞, 則不名爲詩, 而猶得笙詩之稱繫之三百篇之中何也?”

39) 柳重教, 『省齋集』 卷34(총간324책), 「詩講義發問(丁亥秋)」, p.186, “謹按「學記」言「大學」始教「宵雅」肆三, 三雅指「鹿鳴」·「四牡」·「皇皇者華」也. 「鄉飲禮」及「燕禮」皆歌此三篇. 「小雅」之可歌者多矣, 而必以此三篇爲學宮講習之資公私燕飲之樂何也? 「鹿鳴」固是王者燕羣臣之正樂, 「四牡」·「皇皇者華」專爲勞使臣遣使臣一事而作, 則宜不足爲通用之樂, 而亦在三篇之列, 其意可得聞歟?”

언어의 특수성과 결합된 한국 시경학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退溪(1501-1570)의 『詩釋義』, 宣祖 연간 교정청 『시경언해』, 박문호의 『시집전상설』 등에는 『詩經』의 우리말 전환에 대한 고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시경』 주석서에 산견하는 諺解 관련 언급은 『시경』의 우리말 전환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보편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시의 언어이자 經典의 언어인 『시경』을 어떻게 우리말로 잘 옮겨낼 것인가는 오늘날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말 전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 가운데는 시기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명확한 해석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조선시대 시경학자들의 고민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시경』을 현대화시키는 데 여전히 유효한 참고가 될 수 있다.

退溪의 『詩釋義』는 교정청 『諺解』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의 『詩經』 諺解 현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자료이자 퇴계의 『詩』 해석 인식이 반영된 문헌으로 音韻이나 字句의 이해를 중심으로 詩篇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한 자료이다. 퇴계의 『시석의』에 대한 주요 연구로 최석기와 심경호⁴⁰⁾가 있다. 최석기는 韻解·字解·句解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심경호는 『시석의』의 句法과 音韻 분석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최석기는 퇴계의 釋義가 교정청 언해에 수용 양상을 집계수치로 보여줌으로써 『시석의』가 교정청 언해의 확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⁴¹⁾ 퇴계가 구체적으로 주희설에 의거해 釋義의 正誤를 변별하는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고에서 부언할 점은, 퇴계의 『시석의』는 기존 해석의 誤解나 誤謬의 규정이라는 면에서도 조선시대 『시』 해석사 가운데 중요한 의의를

40) 심경호, 『朝鮮時代 漢文學과 詩經論』, 一志社, 1999, pp.527-528. 및 p.554.

41) 최석기, 「退溪의 『詩釋義』에 대하여: 釋義內容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95, 退溪學研究院, 1997, pp.43-46.

지나지만, 『詩』 해석에 異解·多解의 공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퇴계의 구체적인 是非 판별이나 評語가 달린 『詩釋義』 내용 부분에 분석이 집중되었는데, 퇴계가 평설 없이 제시해둔 2설·3설의 併記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의 초보적 판단에 의하면, 두 개의 이상의 說이 병기된 解釋 가운데는 퇴계가 확정짓지 못해 유보한 부분도 존재하겠으나 어법적 조건이나 의미 맥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가능한 해석 공간을 인정하는 퇴계의 해석 태도가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고 사료된다. 가령 「召南·何彼穠矣」 제3장 ‘華如桃李’ 구절에 대한 釋義를 예로 들면, 퇴계는 “華 | 桃李로다○李의華로다, 如字不說. 或云華 | 李근도다”⁴²⁾로 2種 3釋義, 즉 如자를 해석하지 않는 두 개의 釋義와 동사로 해석한 1개의 釋義를 소개하였다. 林泳이 이 구절에 대해 “이미 복숭아꽃 오얏꽃 같이 예쁘다고 하여, ‘~와 같다’고 말했다면 여기서 말한 꽃이 무슨 꽃인가?”⁴³⁾라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如’를 동사로 해석할 경우 발생하는 ‘華’의 모호성을 지적한 언급을 보더라도 이 구절의 如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그리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퇴계는 이 부분에 대한 異說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학자들의 고민을 담아내었다. 따라서 퇴계의 『詩釋義』는 주희설을 따라 詩篇을 우리말로 전환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釋義를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두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당시 학자들의 다양한 고민과 해석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光海君5年(1613)에 목활자로 간행된 『詩經諺解』⁴⁴⁾는 주희설을 정확하

42) 李滉, 『詩釋義』, 『韓國經學資料集成』 제71책, 『詩經』(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2.

43) 林泳, 『滄溪集』 卷19(총간159책), 『讀書筭錄·詩傳·鄭風揚之水』, p.430, “‘華如桃李’, 既曰‘如’, 則所謂‘華’是何華?”

44) 이충구, 『經書諺解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게 반영하고자 한 퇴계 『詩釋義』를 적극 수용하였다. 국가 制定 定本 번역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諺解』는 과거시험의 기준이 되면서 조선후기 학자들의 『詩經』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詩經諺解』가 간행된 이후에 등장하는 『시경』 관련 주석들 가운데에는 단편적으로 諺解의 오류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에서 소개했던 임영이나 정조의 詩說에도 諺解와 관련한 언급들이 보인다. 그러나 『詩經諺解』가 간행된 이후 우리말 讀音 및 口訣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한 학자로 朴文鎬를 꼽을 수 있다.

朴文鎬의 『詩集傳詳說』은 『詩集傳』 원문을 따라 그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한 『詩集傳』의 주석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주희가 『詩集傳』에서 사용한 관습적 언어표현에 주목해 朱熹說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박문호가 주희의 특징적 언어표현을 분석한 기반 위에, 『詩經諺解』에 반영된 『시경』의 우리말 번역을 주희설에 맞추어 해석하고자 한 점을 고찰한 바 있다.⁴⁵⁾ 박문호는 현실음보다는 正則音으로 『詩經諺解』에서 부기한 우리말 한자음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字義·句式·시제·함축 의미 등 다양한 방면으로 『諺解』 번역과 주희설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령 字義 분석에 있어, 박문호는 「鄭風·叔于田」편 ‘叔于田’ 구절의 ‘于’자를 ‘出’자로 해석하였다. 『詩集傳』이 이를 “叔出而田”⁴⁶⁾로 주석한 것에 의거해 볼 때 박문호가 주희 주석의 字義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⁴⁷⁾ 于자의 字義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諺解』를 비판한 점에서도 박문호의 정확한 字義의 이해와 우리말 전환의 관심이

45) 박문호와 관련된 논의는 줄고, 「『詩集傳詳說』에 보이는 『詩經諺解』에 대한 번역학적 고찰」, 『어문논집』 제63호, 민족어문학회, 2011, pp.178-189.의 언급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은 발음, 句式, 시제, 함축의미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46) 朱熹, 『朱子全書』 第1冊, 『詩集傳』 卷4, 「鄭風·叔于田」, p.470, “此詩言叔出而田, 則所居之巷, 若無居人矣.”

47) 朴文鎬, 『詩集傳詳說』 I, p.256, “‘出’字釋‘于’字. 于, 往也. 「七月」篇‘于貉’可考, 諺釋略之, 恐誤.”

반영되어 있다. 박문호는 『諺解』의 오류뿐 아니라 주희설을 잘 반영한 『諺解』의 서술도 주목하였다. 가령 「小雅·蓼蕭」편 “其德不爽, 壽考不忘”을 『諺解』는 “그德이爽티아니하니壽考과더흐야닛디몬흐리로다”라는 미래형 내지 희망형으로 풀이했는데 박문호는 “언해의 해석이 「終南」편 주희註의 의도를 반영하였다.”⁴⁸⁾고 평하였다. 『諺解』의 해석은 주희가 “欲”자를 넣어 “壽考不忘”을 풀이한⁴⁹⁾ 데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박문호의 분석은 당시 중심 텍스트였던 『詩集傳』을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히 전환해내는가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주희설에 의거하여 『詩經』을 우리말로 전환하고자 한 시도를 살펴보았다. 퇴계의 『詩釋義』에서는 이전 시기의 釋義를 종합 고찰하여 정리해내고 교정청 『諺解』는 『詩經』의 우리말 전환의 노력을 적극 반영하면서 조선후기 『시경』 해석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분적인 『詩經諺解』의 讀音 표기·口訣 등은 이후의 개별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박문호에 이르러 다시 한 번 『諺解』의 주희설 반영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진행되었다. 주희설에 따른 『詩經』의 우리말 전환은 조선시대 주희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면모로 분석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수용·재이해 양상을 道學 思想, 詩義 脈絡, 문헌 대상으로서의 측면, 우리말 언어 전환 과정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시대 주희 중심적 시경학의 특징을 심화시켜 살피는 데 유효할 것으로 기

48) 朴文鎬, 『詩集傳詳說』 I, p.539, “按諺釋用「終南」註意.”

49) 朱熹, 『朱子全書』 第1冊, 『詩集傳』 卷6, 「秦風·終南」, p.510, “壽考不忘者, 欲其居此位, 服此服, 長久而安寧也.”

대된다. 첫째, 중국 주희학파의 『시경』연구와 비교 분석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주희학파가 보완 발전시킨, 주희의 시경학에서의 理學·名物·訓詁·解釋論 등이 조선 시대 주희 중심적 시경학자들의 주장과 어떠한 同異點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수용, 발전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가령 주희 시경학 수용 초기 權近의 『시경』 해석은 주희의 詩經說에서 핵심이 되는 논의를 중심으로 주희 시경학을 수용하여 그 뜻을 演繹한 성향이 강한 반면, 주희 시경학 수용 후기에 해당하는 朴文鎬의 주희 시경학 이해는 주희 『詩集傳』의 서술 표현 관습과 규칙성 등 註釋 체제에 주목하여 주희의 의도를 읽어내고자 한 특징이 보인다.

부연할 점은,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을 수용하는 경향의 주석서들은 劉瑾의 『詩傳通釋』 등과 같이 『詩經』 全篇을 주석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박문호의 『詳說』이 『詩集傳』 全篇에 대해 주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신의 단상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거나 君臣間, 學者間, 師弟間의 講義 또는 학술교류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답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發問의 형태로만 『詩經』에 대한 생각을 남겨, 그의 『시경』 인식을 확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양상 또한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 이해의 한 특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수용으로 인식된 몇몇 주석들을 통해 주희 시경학 범주 내에서의 유형적 특징을 변별한,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조선시대 주희 시경학의 이해·수용 양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분석이 요망된다. 한편 주희설을 수용하는 학자들의 수용과 재해석 입장이 다양하다는 연구 결과는, 주희설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구체적인 각도도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접근 각도들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조선시대 詩經學의 특징이 보다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 文獻>

- 權 近, 『詩淺見錄』,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柳重教, 『詩講義發問』,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朴文鎬, 『詩集傳詳說』,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宣祖命編, 『詩經諺解』, 校正廳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顯益, 『正菴集』 卷8, 「雜著·詩傳說」, 韓國文集叢刊本.
- 李 滉, 『詩釋義』,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林 泳, 『讀書筍記-詩傳』,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丁若鏞, 『詩經講義』, 新朝鮮社本.
- 趙得永, 『詩傳講義』, 韓國經學資料集成本.
- 朱 熹, 『詩集傳』, 『朱子全書』 第一冊, 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 方玉潤, 『詩經原始』, 中華書局, 2006.
- 김경천, 「제17차 중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제;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 韓國에 있어서 經學研究의 現況과 課題」, 『중국학보』 제38집, 한국중국학회, 1998.
- 김경호·류준필·이영호, 「韓國儒學資料의 匯集과 電算化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희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 김수경, 「『詩集傳詳說』에 보이는 『詩經諺解』에 대한 번역학적 고찰」, 『어문논집』 제63호, 민족어문학회, 2011.
- 심경호, 『朝鮮時代 漢文學과 詩經論』, 一志社, 1999.
- 이영호, 『朝鮮中期經學思想研究』, 경인문화사, 2004.
- , 「『韓國經學資料集成』의 자료적 특징과 그 보완 및 연구의 방향-『韓國經學資料集成』所載 『論語』주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9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재훈, 「朱子 詩經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충구, 「經書諺解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최석기, 「退溪의 『詩釋義』에 대하여: 釋義內容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95, 退溪學研究院, 1997.
- , 「韓汝愈의 學問性向과 詩經學」, 『漢文學報』 제1집, 우리한문학회, 1999.
- , 「韓國經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회』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 「한국경학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 , 『조선시대 「大學章句」 改定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서, 2011.
- 金秀昶, 「韓國朝鮮時期詩經學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 『韓國朝鮮時期詩經學研究』, 萬卷樓, 2012.
- 檀作文,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 付星星, 「朝鮮時代「詩經」學研究」, 南京大 博士學位論文, 2012.
- 吳 洋, 「朱熹詩經學探研」,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李冬梅, 「宋代「詩經」學專題研究」,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 包麗虹, 「朱熹「詩集傳」文獻學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郝 永, 「朱熹「詩經」解釋學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向 熹, 「讀朱熹詩集傳」, 『樂山師範學院學報』 第17卷 第2期, 2002.

Abstract

*The Study on Zhu Xi's Hermeneutics of Shihjing reflected in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 Kim Su Kyung**

Although Zhu Xi's Hermeneutics of *Shihjing* has been a great impact on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Korean study of her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has mainly focused on the perspectives different from Zhu xi's. This study trend makes a great number of texts which are regarded as hermeneutics of pro-Zhuxi remain unstudied.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investigate the hermeneutics of pro-Zhuxi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aspect of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Zhuxi's hermeneutics of *Shihjing* have various facets. Based on the fact, the study categorizes four point of views such a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language conversion characteristics to investigate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The research shows that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which so-called follow Zhuxi's hermeneutics can give different prominence to Zhuxi's hermeneutics according to interpreters' interest or preferenc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belonging to Zhuxi's hermeneutics also have their own diversification.

【Key words】 *Shihjing*, the *Odes*, Zhu Xi's Hermeneutics of *Shihjing*, Korean traditional hermeneutics of *Shihjing*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

* A post-doc at Korea University Chinese Studies Institute / dansill@hanmail.net